

『道德經』 1-20章의 國譯 研究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¹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²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³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⁴
홍진우¹ · 신장우² · 채한³ · 백진웅⁴ *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Tao Te Ching(道德經)』 Chapter 1-20

Hong Jin-woo¹ · Shin Sang-woo² · Chae Han³ · Baek Jin-ung⁴ *

¹Oriental Inter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³Division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⁴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catch the message of Taoism inside the theory of Korean medicine,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ao Te Ching(道德經) the only writings of Lao-tzu(老子). And to do that, precise translation into Korean language must be held before anything else. There have been a little bit more than 50 Korean versions of Tao-te-Ching, and we screened out 10 versions based on academic value. With them, we had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ao Te Ching, from chapter 1 to 20. Our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10 versions have some obscure words, wrong paragraph classifications, descriptions out of context needing remedial actions for exact understanding. And Chinese words and phrases with various meanings could be translated correctly with our constant rule that values consistent context.

Key Words : Tao Te Ching(道德經), Lao-tzu(老子), translation

I. 序 論

韓醫學의 경전인 『黃帝內經』은 黃老의 自然觀에 근거해 다양한 醫書와 養生書를 종합한 것이고¹⁾,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와 『黃帝內經』의 체계화를 일

군 王冰의 경우도 隋唐代의 道教 성행과 무관하지 않다.²⁾ 韓醫學 성립의 초창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韓醫學 내에는 道敎的 경향성이 기본적 사유방식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韓醫學의 사유방식의 이해를 위해선 黃老思想, 老莊思想, 道家思想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前漢(B.C.

* 교신저자 : 白晉雄.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E-mail : mukjagan@naver.com Tel : 051-510-8452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사. 2008. p.21.

2) 成昊俊.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敎思想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2000. Vol.13(1). p.254.

3) 成昊俊.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敎思想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2000. Vol.13(1). p.254.

4)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사.

202 ~ A.D. 220) 이후로 수 천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變容을 거치며 발달해 온 黃老思想, 老莊思想, 道家思想의 광범위한 思想的 영역 속에서 老子思想의 原型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道德經』을 이해해야 한다. 『道德經』은 老子的 유일한 저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聖書』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翻譯되고 읽혀졌다고 알려진 것에⁵⁾ 걸맞게 『道德經』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이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인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http://www.dsl.kr/index.do>)을 이용해 검색해 보면 『道德經』 혹은 그 저자인 老子和 관련한 학위 논문이 총 197개에 달한다.⁶⁾ 그런데 아쉽게도 『道德經』 國譯에 대한 체계적 研究 논문은 아직 없다. 해당 주제의 필요에 따라 발췌된 부분이 해석된 논문만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道德經』 國譯에 관한 단행본은 매우 많다. 原文과 國譯이 모두 수록된 단행본만 따져도 총 50 餘種이나 된다.⁷⁾ 단행본의 분량으로만 보면 『道德經』 國譯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 바램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바램이 있으면 그 가생이를 본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와서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 같음을 가물타고 한다. 가물고 또 가물토다! 못 묘함이 모두 그 문에서 나오는 도다.”⁸⁾의 예에서처럼 國譯된 내용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翻譯이 적지 않으며, 또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 큰 근심을 소중히 다루

기를 마치 제 몸 소중히 여기듯이 하라. 어찌해서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 하는가. 남의 아래된 사람은 은총을 얻어도 두려워하고 굴욕을 당해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다. 어찌해서 큰 근심 다루기를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가.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게 되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천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겨도 좋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부탁해도 좋을 것이다.”⁹⁾의 예에서처럼 각 章의 전체 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翻譯도 적지 않다. 이러한 翻譯들은 『道德經』 이해 및 『道德經』에 내재된 思想이 韓醫學 사유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道德經』을 『하상공장구』의 방식대로 養生論의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왕필노자주』의 방식대로 義理論의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차이에 의해서¹⁰⁾ 의미 파악이 확연히 달라진다. 즉 『하상공장구』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道德經』의 많은 章들이 구체적으로 한의학의 養生思想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왕필노자주』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韓醫學의 기본 哲學 思想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만보다도 解釋 및 翻譯이 『道德經』 내용 및 『道德經』이 韓醫學 사유방식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차이를 초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道德經』 國譯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道德經』 國譯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1-20章까지의 國譯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8. pp.15-16. “黃老思想이란 중국 고대의 여러 사상과 신앙전통을 黃帝와 老子的 이름 아래 융합한 것이다.”, “漢代에 유가가 국가종교가 되어 黃老가 몰락한 후에 점차 道家 개념이 黃老를 대체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현대 학자들은 黃老와 老莊 모두 넓은 의미의 道家에 포함시킨다.”

5) 김도훈, 홍원식. 『老子』와 『黃帝內經』의 인간관과 자연관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2. Vol.15(1). p.4.

6) 2009년 7월 3일 기준.

7) 인터넷 교보문고(<http://www.kyobobook.co.kr/search/SearchKorbookMain.jsp>). 2009년 7월 4일 기준. 여러 권으로 나누어 출간된 서적은 모두 합해서 1권으로 산정하였음. 그리고 著자가 같더라도 출판년도나 출판사가 다른 경우는 다른 책으로 산정하였음.

8) 김용옥.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13.

9)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53.

10) 김시진. 『노자』의 양생론적 해석과 의리론적 해석 : 『하상공장구』와 『왕필노자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3. p.1.

II. 資料 및 研究 方法

1. 資料의 구성

1) 『道德經』原文은 이강수의 『노자』¹¹⁾를 따랐다.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王弼注 華亭張氏本을 底本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竹簡本, 帛書本 등 다양한 판본과의 비교를 거친 校勘이 이루어져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句讀點은 출판된 여러 문헌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2) 총 50餘種의 기존 國譯書 중에서 翻譯 용어의 선택이나 문맥 파악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10종의 서적을 선택해 句讀點 결정 및 『道德經』翻譯에 주로 참고하였는데, 그 목록을 출판 년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 ② 김용옥.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 ③ 임수무. 老子 도덕경.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광역시. 2003.
- ④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4.
- ⑤ 호승희 역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동양편 04 <노자>. 서울. 타입기획. 2005.
- ⑥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 ⑦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 ⑧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 ⑨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 ⑩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2. 研究 方法

1) 『道德經』1章부터 20章까지 각 章別로 【原文】, 【國譯】, 【考察】의 순서로 본문을 구성하였

다.

2) 기존 國譯本의 학술적 성과는 인정하고 계승하되 일부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령 漢文 특유의 重意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翻譯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기존 國譯本에서 일부 문단 구분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章 전체의 문맥 흐름이 통일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각 章의 첫 구절에서부터 끝 구절까지의 의미 연결성과 통일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國譯하였다.

4) 章 전체의 문맥 흐름 파악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¹⁻¹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매겼다. 맨 앞의 숫자는 큰 주제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해당 章의 모든 구절 번호의 맨 앞자리가 1이라면 그 章의 주제는 상이한 3종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번호는 문단 구분을 의미한다.

5) 直譯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 意譯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直譯과 意譯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直譯 내용에 意譯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도, 빼고 읽어도 모두 문맥이 통하도록 國譯 문장을 구성하였다.

6) 【考察】에 記述한 ‘일반적인 國譯’의 예들은 기존의 國譯書 중에서 인용하였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일 때는 문장이 가장 잘 다듬어졌다고 판단한 한 가지만 인용하였고, 異見이 많을 때에는 다수가 선택한 것과 함께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한 두 가지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7) 예를 들어 ‘絶仁棄義’는 있는 그대로의 글자 배치 순서대로 ‘仁을 끊고 義를 버린다’라고 國譯할 수도 있고, ‘絶棄仁義’의 變形으로 보아 ‘仁義를 끊어 버린다’라고 國譯할 수도 있다. 『道德經』內에는 이런 종류의 구절이 적지 않은데, 본 論文에서는 한 방식으로 통일하지 않고 각 구절마다 그 구절을 한글로 표현했을 때 문맥에 더 어울리는 翻譯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만 어느 쪽으로 翻譯해도 비슷할 경우에는

1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原文에 충실한다는 의미로 前者의 翻譯 방식을 선택하였다.

III. 本論

1. 一章

【原文】¹⁻¹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¹⁻²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故常無，欲以觀其妙，常有，欲以觀其徼。此兩者，同出而異名。¹⁻³同謂之玄，玄之又玄，衆妙之門。¹²⁾

【國譯】¹⁻¹도를 도라고 (말로 설명)할 순 있지만 (설명이) 도 그 자체는 아니다. 사물을 이름 지을 순 있지만 (이름이) 사물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다. (그러니 도에 대한 설명은 단지 도를 이해하는 방편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¹⁻²(도는 크게 유와 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無는 우주가 시작되는 근원적 측면을 명명한 것이고, 有는 구체적인 만물을 만들어 낸 모성적 측면을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無(의 개념)으로 (도의) 오묘한 (추상적) 측면을 추측할 수 있고, 언제나 有(의 개념)으로 (도의) 드러난 (구체적) 측면을 추측할 수 있다. (나누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사실 유와 무) 이 두 가지는 (도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도라는) 같은 것에서 나온 것으로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¹⁻³(유와 무를 모두 포괄하여) 같이 말하면 그저 신비뿐이니 (도는 정말) 신비하고 또 신비하므로 (한 다미로 말해) 그 온갖 특이하고 묘한 것이 모두 나오는 (신비한) 문이(라고 할 수 있다).

【考察】1장은 道の 개념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道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有와 無의 양면적 특성을,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道의 신비함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¹³⁾이고, 설득력 있는 독

창적 國譯으로 “도를 道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道인 것은 아니니라. 어떤 이름으로 이름 붙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문단은 道에 대한 설명을 道 자체로 받아들여 道の 體得이 아닌 개념적 이해에 그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이름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원은 같은 것. 이름이 다를 뿐 둘 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¹⁴⁾와 “없음(無)은 천지의 처음을 일컫고 있음(有)은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항상한 없음(無)으로 그 묘함(본체세계)을 보고자 하고, 항상한 있음(有)으로 그 경계(가장자리 : 현상세계)를 보고자 하니, 이 두 가지는 같으나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다.”¹⁵⁾로 크게 나뉜다. 그런데 有欲과 無欲을 한 단어로 ‘욕심이 있다(有欲)’와 ‘욕심이 없다(無欲)’로 보는 것보다는, 이 문단의 有와 無는 앞 문단에 이어서 道를 설명한 것으로, 즉 道의 양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有와 欲, 無와 欲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後者에 가깝게 國譯하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그들을 모두 현묘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오묘한 것의 문이다.”¹⁶⁾ 혹은 “같음을 현묘하다고 이르니 ~”¹⁷⁾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前者의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¹⁸⁾

14)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19.

15)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23.

1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37.

17)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23.

18) 대표적 『道德經』註釋이라 할 수 있는 『하상공장구』와 『왕필노자주』를 보면, 養生論의 관점과 義理論의 관점이라는 근본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章에 대한 해석에는 별

1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37.

1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37.

2. 二章

【原文】¹⁻¹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¹⁻²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²⁻¹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²⁻²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爲而不恃，功成而弗居。²⁻³夫唯弗居 是以不去。¹⁹

【國譯】¹⁻¹(아름다움과 추함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에만 초점을 맞춰) ‘아름다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추함이 있게 된다. (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모두 (좋은에만 초점을 맞춰)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이 있게 된다. ¹⁻²그러므로 (모든 상대적인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아래가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의미 없는 소리인) 음과 (의미 있는 소리인) 성이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앞과 뒤가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²⁻¹이러한 이치 (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인은 (상대성 중 어느 한 쪽만을 고집하지 않고 양면 중 어느 쪽이 현실 삶에 드

차이가 없다.(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p.38-41.) 하지만 3章의 ‘弱其志 強其骨’을 왕필은 “뻐는 지각작용이 없이 일을 하고, 뜻은 일거리를 생기게 하여 어지럽힌다.”라는 식으로, 하상공은 “너그럽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순리에 따르면서 겸양하되 권세나 권위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정기를 아끼어 신중하게 쓰고, 뱃속이 가득차고 뻐가 튼튼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서로간의 관점 차이가 다소 반영된 해석을 하였다.(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7.) 이처럼 각 章의 내용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註釋家들의 다양한 해석 방식과 본 논문의 해석 방식을 비교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한의학적 의미를 추출해 낸다면 본 논문이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내용이 너무 繁多해질 뿐 아니라 정확한 國譯에 내용의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번역의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학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考察의 내용을 國譯과 관련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19)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2.

러나더라도 모두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히 대처하는) 無爲(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 가르친다. ²⁻²(그 과정에서) 만물의 생장 변화를 돕더라도 (간섭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생하게 하여도 소유하지 않고, 해 주기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일이 잘 이루어져도 (그 성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²⁻³이렇게 (그 성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로 내쳐지지 않고)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다.

【考察】2章은 만물의 상대성과 聖人の 無爲行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美惡과 善惡의 상대성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상대성의 예들을 記述하였고,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문단(2-1)에서는 聖人の 無爲行에 대해, 두 번째 문단(2-2)에서는 無爲行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聖人の 태도를, 세 번째 문단(2-3)에서는 弗居해야 오히려 不去하는 역설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나 여기에 바로 추한 것이 있게 되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나 여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게 된다.”²⁰ 혹은 “하늘 아랫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의 아름다움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못생김이다. 하늘 아랫 사람들이 모두 좋음의 좋음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지 못함이다.”²¹이다. 그런데 다음 문단에서 만물의 상대성의 예가 記述된 것으로 볼 때 이 문단은 한 측면을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상대적 면이 존재하게 된다는 식으로 翻譯한 前者의 방식이 “좋음을 좋다고 보는 것은 착각일 뿐 사실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翻譯한 後者의 방식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후자의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은 平易하여 이에 대한 國譯도 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적 國譯을 따르되 앞 문단들의 내용과 계속 이어짐에 특히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그 다음 문단은 ‘是以~’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앞 문

2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2.

21) 김용옥.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15.

단과 연결이 된다. 하지만 앞 문단들이 自然의 질서를 記述한 것이라면 이 문단은 그 自然의 질서대로 行하는 聖人の 無爲行에 대한 記述이므로 앞 문단들과는 주제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문단이라는 의미로 2-1이란 번호를 붙였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문단의 일반적 國譯은 “이로써 聖人은 無爲의 일에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²²⁾인데, ‘聖人’이란 단어를 따로 翻譯하지 않고 일반명사로 그냥 사용하였다.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매우 훌륭한 사람’ 정도의 일반적 通念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유교의 이상적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혜와 덕이 비범한 경지에 이른 사람”²³⁾이라거나 “사물의 이치에 밝고 養生法을 잘 지켜서 오래 사는 사람을 추상적으로 眞人, 至人, 聖人, 賢人의 4 부류로 나누어 놓은 것 가운데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 말. 진리와 이치를 잘 알고 양생법에 맞게 몸을 수양하는 사람을 말한다.”²⁴⁾처럼 분야에 따라 聖人の 구체적 의미가 조금씩 다르므로 여기서도 聖人の 구체적 의미를 설명해 翻譯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 문단들에서 만물의 상대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본 문단 맨 앞이 ‘是以’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聖人이란 ‘만물의 상대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無爲도 대부분 따로 翻譯하지 않고 일반명사로 그냥 사용하거나 ‘함이 없음’ 혹은 ‘작위함이 없음’으로 翻譯하였다. 하지만 추상적 개념의 단어인 無爲를 그냥 사용하거나 글자 그대로 翻譯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용된 無爲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해 翻譯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無爲의 主體인 聖人을 ‘만물의 상대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석한 연장선상에서 ‘聖人이 하는 無爲行’이란 ‘만물의 양면성 중 어느 한 쪽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라고 翻譯하였다. 그리고 ‘行不言之教’는 無

爲를 실천함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문단의 일반적인 國譯은 “만물이 그에 의하여 성장·변화할지라도 간섭·지배하지 아니하며, 생기게 하여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위해주고서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며,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한다.”²⁵⁾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의 일반적인 國譯은 “대저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떠나지 아니한다.”²⁶⁾ 혹은 “무릇 오로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그 공이 떠나지 않는다.”²⁷⁾인데, 不去의 主體를 功으로 파악한 後者の 國譯보다 主體를 聖人으로 파악한 前者의 國譯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前者의 國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3. 三章

【原文】¹⁻¹不尙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不見可欲，使民心不亂。¹⁻²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常使民無知無欲，使夫智者不敢爲也。¹⁻³爲無爲則無不治。²⁸⁾

【國譯】¹⁻¹(특정 사상을 주장하는 소위) 현자를 숭상하지 않으므로써 백성들로 하여금(그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하고, 쉽게 얻기 어려운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써 백성들로 하여금(역지로 얻기 위해)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욕심낼 만한 것들을(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백성들로 하여금(갖고 싶어) 심란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¹⁻²그래서(이상적 지도자인) 성인의 다스림은(자신의 관념적인 사상을 주장하거나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유도하느라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생활에 거

22)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29.

23) 儒教大辭典編纂委員會. 儒教大辭典. 서울. 성균관. 2007. p.1055.

24)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5).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56.

2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2.

2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2.

27)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29.

28)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5.

추장스러운 이념들과 허욕을 버림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은 편안하게 해 주고, (대신 현실에 맞게) 먹고 살기 좋게 만드(는데 집중하)며, (특정 가치나 이념에 대한 편견과 집착에 가까운) 신념을 약하게 만들고 (대신 실제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삶을 혼란스럽게 할 편협한) 지식이나 욕심이 없게 하고,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끼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¹⁻³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하는) 무위의 통치 행위를 한다면 다스려 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考察】 3章은 無爲에 기반한 聖人の 다스림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다스릴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聖人 다스림의 큰 틀을,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無爲로 다스려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賢者를 높이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얻기 어려운 財貨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아니할 것이다.”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이로써 聖人の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나 그 배를 채워주며, 그 뜻을 약하게 하나 그 뼈를 강하게 하여, 항상 백성이 얇아 없고 욕심이 없게 하여 무릇 지혜로운 자가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²⁹이다. 國譯本마다 문장을 끊어 해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는 대체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 문단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원칙에 대한 記述이므로 여기서의 聖人은 2章에서와는 달리 정치 지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國譯하였다.³⁰ 또 ‘虛其心, 實其腹, 弱其

志, 強其骨’에서 비우고 약하게 만들어야 할 心과 志란 쓸데없는 관념들을, 채우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腹과 骨은 실제 현실 삶이라고 보았다. 知와 欲을 일부 國譯本에서처럼 ‘교활한 지식, 탐욕’³¹으로, 智者란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³²으로 國譯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 문단과의 의미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고,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無爲로 행하면 곧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³³이다. 여기에서의 無爲의 의미를 앞 문단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의 禁忌를 지키고 두 번째 문단에서의 실용적 다스림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無爲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4. 四章

【原文】¹⁻¹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 似萬物之宗.
¹⁻²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¹⁻³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³⁴

【國譯】¹⁻¹(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는 (실체 없이 텅) 비어있어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아 마치) 채워져 있지 않은 듯 하니, (그) 깊고 깊음이 만물의 근원인 듯 하다. ¹⁻²(도는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은 꺾고, 복잡한 것은 풀며, (또 도는 모든 존재의 바탕이기 때문에) 밝음과도 조화를 이루고, 티끌과도 함께하니 (그) 투명함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듯하다. ¹⁻³난 (도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집착컨대) 상제보다도 먼저인 듯하다.

【考察】 4章은 道의 屬性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道가 만물의 근원임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道가 어디에나 존재함을, 세 번째

29)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32.

30) 이처럼 본 論文에서는 ‘聖人’을 각 章의 문맥상 의미에 맞게 國譯하였다. 다음 章부터는 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3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5.

3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5.

33)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32.

34)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8.

문단(1-3)에서는 道가 象帝보다도 먼저 존재함을 記述하였다. 이 章은 道の 속성에 대한 추상적 설명이기 때문인지 예를 들자면 “道는 텅 비어있어 그것을 쓰더라도 혹 차지 않으니, 깊음이어! 만물의 귀의처인 듯 하다.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움을 풀며 그 광명을 화하고 그 티끌을 함께 하니, 맑음이어! 혹 있는 듯 하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나, 아마도 상제(하느님)보다 앞서는 듯 하도다.”³⁵⁾, “길은 뽕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씨도 마르지 않는도다. 그윽 하도다! 온갖 것의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푸는도다. 그 빛이 튀쳐남이 없게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는도다. 맑고 맑도다! 있는 것 같도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네. 상제보다 앞서는 것 같네.”³⁶⁾, “도는 허령(虛靈)하되 작용하면 다함이 없으니, 깊고 깊음이어! 만물의 으뜸인 듯하고,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며 얽힌 것을 풀며 빛을 누그러뜨리며 티끌과 함께 한다. 모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음이어! 혹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니 천제(天帝)보다 먼저인 듯하다.”³⁷⁾와 같은 식으로 國譯本들마다 끊어 읽기와 解釋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道沖而用之或不盈’은 道の 屬性에 대한 記述이고, 이 記述에 대한 감탄성 요약이 바로 ‘淵兮, 似萬物之宗’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로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는 道の 屬性에 대한 記述이고, 이 記述에 대한 감탄성 요약이 바로 ‘湛兮似或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맨 마지막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은 道の 존재 시점이 그 무엇보다 앞서 있음을 記述한 구절로써 道の 속성을 언급한 앞 문단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으나 ‘道에 대한 記述’이라는 주제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의 세 번째 문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淵’자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크게 ‘찰 淵’으로 해석하는 방식과³⁸⁾ ‘다할 窮’ 혹은 ‘다할

盡’으로 해석하는 방식의³⁹⁾ 두 가지가 있는데, “道는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어서 무엇을 건져 올려 쓰려고 하면 채워져 있지 않아 올라오는 것이 없을지 모른다는 말이다. ‘아무리 씨도 枯渴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해석은 道라는 것이 쓸 수 있는 무언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⁴⁰⁾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고,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5. 五章

【原文】¹⁻¹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¹⁻²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¹⁻³多言數窮, 不如守中.⁴¹⁾

【國譯】¹⁻¹자연은 어질다고 할 수 없으니,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좋은 목적으로도 만물에 간섭하지 않고, 제사 때 상 한 쪽에 올려놓는) 풀강아지처럼 만물을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성인도 어질다고 할 수 없으니,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좋은 목적으로도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제사 때 상 한 쪽에 올려놓는) 풀강아지처럼 백성들을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¹⁻²(이처럼 간섭받지 않는) 자연은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으나 구부러지지 않으며 움직일수록 더욱 (많은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낸다. ¹⁻³(하지만 자연과 달리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기 마련인 사람은 간섭받는) 말이 많아질수록 자주 궁색해지므로 (자연처럼 아무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원 성향대로) 속을 유지하는 것만 못하다.

【考察】5章은 불간섭 원리를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自然과 聖人은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음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자연은 특정 잣대를 들이대며 간섭하지 않으나 그 텅 비어

35)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35.

36)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19.

37)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48.

38)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

학서림. 2005. p.35.

39)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p.48-49.

40) 이경숙.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p.99-100.

4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1.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것을 만들어냄을,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사람 역시 특정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반대로 비어 있어야 함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천지는 不仁하여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여기고 聖人は 不仁하여 백성을 풀강아지처럼 여기도다.”⁴²⁾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翻譯을 따르되, 다만 ‘풀강아지처럼 여긴다’를 “제사상에서 별로 중시되지 않는 풀로 만든 강아지처럼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따라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임에 초점을 두어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 풀무와 피리 같지 않을까? 비록 텅 비어 있으나 다 썩버리지 아니하며, 밀이 보낼수록 더욱 더 많은 소리와 기운이 나온다.”⁴³⁾인데, 翻譯에는 異見이 없으나 기존 國譯本은 앞 문단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문단에서 ‘비어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내는 自然’에 관해 記述한 이유는 “自然과 聖人は 특정 관념이나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반대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앞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차라리 그 비어 있음은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⁴⁴⁾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翻譯을 따르되 여기에서의 ‘多言’이란 ‘간섭하는 말’을, ‘守中’이란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의 성향을 지키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유의하고, 또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6. 六章

【原文】¹⁻¹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

之根，縣縣若存，用之不動。⁴⁵⁾

【國譯】¹⁻¹(도의 또 다른 이름이자 텅 빈 계곡의 신이라는 뜻의)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묘한 암컷이라는 뜻으로) 현빈이라고(도) 한다. 현빈의 문은 (천지와 만물이 유래된 곳이므로) 천지의 뿌리라고 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면면히 이어지며 존재하여 그것을 (쓰려 해도 확실하게 실체를 잡고 쓰는 것처럼) 힘써 쓸 수가 없다.

【考察】6章은 谷神과 玄牝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한 문단으로 구성된 짧은 章이다. 이 章에 대한 既存의 翻譯은 ‘谷神’과 ‘玄牝’의 해석 방식에 따라 다양한데, 예를 들어 “곡신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지라, 이를 일러 현빈이라 하고, 현묘한 암컷의 생식기를 천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면면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한 듯하여 그 작용이 무궁무진하니라.”⁴⁶⁾ “골짜기의 신비로움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암컷이라 일컬고, 현묘한 암컷의 문을 천지의 뿌리라고 일컬으니, 면면히 있는 듯하여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다.”⁴⁷⁾,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써도 다 할 줄을 모릅니다.”등을 들 수 있다.⁴⁸⁾ ‘谷神不死’, ‘玄牝’, ‘不勤’을 독특하게 해석한 예로는 “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계곡이 있으니, 이를 일러 玄牝이라 하느니라. 玄牝의 문은 하늘과 땅의 뿌리지만 그 이어짐이 실낱같아서 어찌 보면 있는 것도 같지만 쓰임에는 게으른 것이도다.”⁴⁹⁾를 들 수 있다. 하지만 『道德經』 곳곳에서 道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음과 본 章에서 記述된 ‘玄牝之門은 천지의 뿌리’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谷神’은 ‘玄牝’의 또 다른 이름이고, ‘谷神’과 ‘玄牝’은 모두 道를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老子에 의해 만들어진 道의 異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不勤은 ‘道의 실체가 없어 확실하게 실

4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1.

4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1.

44)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p.94.

4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4.

4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4.

47)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41.

48)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39.

49)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120.

체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쓸 수는 없다'는 의미로 翻譯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7. 七章

【原文】¹⁻¹天長地久，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生。¹⁻²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非以其無私邪，故能成其私。⁵⁰

【國譯】¹⁻¹자연은 영원한데, 자연이 영원한 까닭은 스스로 (순리에 어긋난 방법으로 사사로이) 생을 유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¹⁻²이처럼 성인도 자신(만의 특정 견해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니 (오히려) 자신이 (남들을 이끌어갈) 앞자리에 있게 되고, 자신(만의 견해나 이익)을 멀리하니 (오히려) 자신(의 견해나 이익)이 보존된다. (이는 전체의 일부분인 자신만을 생각하며 순리에 어긋나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사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 아니겠는가!

【考察】7章은 私事로움이 없어야 오래감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自然이 영원한 이유를,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나서지 않는 聖人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私事로움을 이룰 수 있음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천지는 장구하다. 천지가 길고 또 오래갈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장생할 수 있다.”⁵¹ 혹은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영원한 까닭은 그 생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⁵² 인데, ‘其不自生’은 뒷문단과의 의미 연결성을 생각할 때 ‘私事로움’과 연결 지어 翻譯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이 때문에 聖人은 그 자신을 뒤로 하지만 도리어 자신이 앞서게 되고, 그

자신을 도외시하므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에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므로 그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⁵³인데, 참고할 만한 독특한 翻譯으로 “그러므로 聖人은, 그 몸을 뒤로 하는 것으로 앞세움을 삼고, 몸을 밖에 두어 그 몸을 보존하나니 이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루게 되느니라.”⁵⁴를 들 수 있다. 이 중 前者의 翻譯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聖人이 오래가며 私事로움을 이루는 이유는 順理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8. 八章

【原文】¹⁻¹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¹⁻²居善地，心善淵，與善仁，言善信，正善治，事善能，動善時。¹⁻³夫唯不爭，故無尤。⁵⁵

【國譯】¹⁻¹(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덕목인) 상선은 물(의 속성)과 비슷하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이나 더러운 곳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잘) 머무르니 거의 도와 같다.¹⁻²(삶을 위한 다른 덕목을 살펴보면) 머무를 때의 선은 (진중하고 안정되기가) 땅 같은 것이고, 마음상태의 선은 (깊고 고요하기가) 연못 같은 것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의 선은 어진 것이고, 말할 때의 선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바로 잡을 때의 선은 (어그러지지 않고 전체가) 잘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고, 일할 때의 선은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움직일 때의 선은 (적당한) 때를 맞추는 것이다.¹⁻³(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선은 다투지 않은 것이니) 다투지 않아야만 허물이 없다.

【考察】8章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음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최고의 선인 물의 덕성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다른 여러 善들의 덕성을,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不爭해야 허물이 없음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5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6.

5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6.

52)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p.111.

5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6.

54)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126.

5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8.

國譯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못사람이 싫어하는 바에 거처하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⁵⁶⁾이다. 이와 달리 첫 번째 구절인 ‘上善若水’를 “선을 높이는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⁵⁷⁾라고 國譯한 경우도 있으나 ‘上善’을 ‘최고의 선’이라는 명사형으로 본 前者의 경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체로 前者의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거처함은 땅과 같이 잘하고, 마음 씀은 연못과 같이 잘하고, 함께함은 어질게 하기를 잘하고, 말함은 믿음직하게 하기를 잘하고, 정치함은 다스리기를 잘하고, 일함은 능숙하게 하기를 잘하고, 움직임은 때에 맞게 하기를 잘한다.”⁵⁸⁾ 혹은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자세, 심연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귀,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가린 움직임.”⁵⁹⁾이다. 이러한 國譯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문단의 주어 ‘물’로 보고, 첫 번째 문단에 이어 물의 덕성을 계속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 문단에서 ‘上善’을 ‘최고의 선’이라는 명사형으로 파악했다면 본 문단에서의 ‘居善’, ‘心善’, ‘與善’, ‘言善’, ‘正善’, ‘事善’, ‘動善’도 모두 명사형으로 보아 ‘머무를 때의 선’, ‘마음 상태의 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의 선’, ‘말할 때의 선’, ‘바로잡을 때의 선’, ‘일할 때의 선’, ‘행동할 때의 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본 문단은 ‘上善’인 물의 덕성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다른 덕성을 설명한 것으로, “이런 선들을 반복하여 열거한 이유는 상선으로서의 물의 덕과 대비하여 물의 덕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다.”⁶⁰⁾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의 일반적인 國譯은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도다.”⁶¹⁾이다. “대저 다

투지 아니하는지라, 천하에 그를 원망하고 닦하는 것이 없다.”⁶²⁾ 혹은 “겨루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 받을 일도 없습니다.”⁶³⁾라고 國譯한 경우도 있지만 ‘無尤’를 외부에서 닦하는 걸로 보기보다는 스스로 허물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前者의 國譯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문단의 의도는 첫 번째 문단에서 記述한 上善과 두 번째 문단에서 記述한 다른 善들과의 가장 핵심적 차이는 不爭이고, 따라서 다른 善들이 아무리 좋아도 不爭의 德을 갖춰야만 허물이 없게 되는데, 물과 같은 上善은 이를 갖추고 있는 最高善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9. 九章

【原文】¹⁻¹持而盈之，不如其已，揣而稅之，不可長保。金玉滿堂，莫之能守，富貴而驕，自遺其咎。¹⁻²功遂身退，天之道。⁶⁴⁾

【國譯】¹⁻¹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만 못하고, (계속) 헤아리면서 (대들보위에 자리한 짧은 기둥인) 동자기동처럼 높아지려하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하면 그것을 능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짓게 되는 것이다.¹⁻²(그러므로 웬만큼) 공을 이루고 나면 물러나 (서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다.

【考察】9章은 적당한 때에 물러나야 함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예들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공을 이루고 나면 물러나야함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많이 가지고서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것을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끝을 두들겨 날카롭게 하는 것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마루에 가득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부귀하

56)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46.

57)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8.

58)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46.

59)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47.

60)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131.

61) 김용옥.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27.

6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58.

63)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47.

64)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1.

면서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리라.”⁶⁵⁾이다. ‘揣而稅之’의 ‘稅’를 ‘銳’의 뜻으로 본 것인데, 이 보다는 “대들보 위에 세워 상량이나 오랑 따위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말하는 동자기둥 ‘稅’자로 보고, 주 제님께 욕심을 부리며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있는 것을 비유한 구절”⁶⁶⁾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稅之, 不可長保. 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의 문장 구조를 그 의미에 따라 세분해보면 ‘持而盈之, 不如其已’은 ‘金玉滿堂, 莫之能守’로 이어져 “적당히 가지고 멈추는 것이 좋다. 금옥으로 집을 가득 채워봤자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본다면 ‘揣而稅之, 不可長保’는 ‘富貴而驕, 自遺其咎.’로 이어지므로 ‘揣而稅之, 不可長保’의 내용은 높은 지위 및 교만과 관련된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공을 이루면 스스로 물러남이 하늘의 도인 것이다.”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적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0. 十章

【原文】¹⁻¹載營魄抱一, 能無離乎. ¹⁻²專氣致柔, 能嬰兒乎. ¹⁻³滌除玄覽, 能無疵乎. ¹⁻⁴愛民治國, 能無知乎. ¹⁻⁵天門開闢, 能無雌乎. ¹⁻⁶明白四達, 能無爲乎. ¹⁻⁷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⁶⁷⁾

【國譯】¹⁻¹(백성을 상징하는) 혼백을 하나로 모아(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¹⁻²(백성의)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순화)하여(때 묻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¹⁻³(백성들 마음의 상징인)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마음 속 원한이나 상처, 편견 같은)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¹⁻⁴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순리에 어

긋난 편협한) 얹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¹⁻⁵(개국을 비유하는 말인) 하늘의 문을 열 때 암컷(처럼 사사로움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¹⁻⁶(다스림을) 사방에 분명하고 밝게 펼치되(역지로 강제함이 없는) 무위로 할 수 있겠는가? ¹⁻⁷만물을 낳고 기름에 있어 낳고도 갖지 않으며,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키우고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현덕이라고 한다.

【考察】10章은 玄德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이 章은 문장이 난잡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서 논란이 많은 곳이다.”⁶⁸⁾ 혹은 “읽기에 따라 우주론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요가 수행법이나 長生術을 가르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⁶⁹⁾라고 언급할 정도로 翻譯이 어려운 章으로 알려져 왔다. 문단의 구분은 쉽지만, 분류된 각 문단의 의미 파악과 문단끼리의 연결을 통한 전체 章의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다. 筆者 역시 이 章에 대해선 다른 어떤 翻譯보다도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翻譯을 확정하지 못했다. 즉 여기에 제시한 國譯은 기존의 여러 國譯들을 참고해 翻譯한 단순 의견 제시 수준의 翻譯에 불과하다. 이를 전제로 考察을 진행해보면, 첫 번째 문단(1-1)에서 여섯 번째 문단(1-6)까지는 각각 추구해야 할 어떤 덕목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곱 번째 문단(1-7)은 앞 문단 전체를 총괄하는 玄德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비교적 의미가 분명한 일곱 번째 문단의 일반적 國譯을 보면 “만물을 낳고 기름에 있어 낳고도 갖지 않으며,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키우고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현덕이라고 한다.”⁷⁰⁾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적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이 일곱 번째 문단의 主體가 ‘玄德을 실천하는 자’이므로 앞 문단들의 主體 역시 ‘玄德을 실천하는 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문단까지의 각 내용은 ‘玄德을 실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여섯 가지 덕목이란

6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1.

66)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51.

67)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4.

68)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4. p.174.

69)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56.

70) 호승희 역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동양편 04 <노자>. 서울. 타임기획. 2005. p.36.

일곱 번째 문단의 ‘生之畜之’, ‘生’, ‘爲’, ‘長’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玄德이란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不有’, ‘不恃’, ‘不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문단을 파악하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문단까지를 老子가 ‘玄德을 실천하는 자’에게, 더 정확히는 ‘玄德을 실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파악하여 上記한 바대로 翻譯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여기에 제시한 國譯은 기존의 여러 國譯들을 참고해 작성한 단순 의견 제시 수준의 翻譯에 불과하므로 이 國譯을 타당한 것으로 주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로 다른 國譯本과의 편리한 비교를 위해 몇 가지 기존 國譯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한 몸에 신고 하나를 껴안는다. 능히 떠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기를 오로지하고 부드러움을 이루어 능히 갓난아기가 될 수 있겠는가? 가물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 능히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림에 능히 지혜롭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능히 암컷으로 머물 수 있겠는가? 밝고 또 밝아 사방을 비추면서 능히 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길은 생겨나고 덕은 쌓아가네. 낳으면서도 낳은 것을 가지지 않고, 지으면서도 지은 것에 기대지 않고, 자라게 하면서도 자란 것을 지배치 않네. 이것을 일컬어 가물한 덕이 하는 것일세.”⁷¹⁾

“혼과 백을 실어 하나를 안더라도 능히 떠남이 없게 할 수 있는가. 기운을 전일하게 하여 부드러움을 이루더라도 능히 갓난아이같이 될 수 있는가. 현묘한 거울을 씻어내더라도 능히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능히 얹어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더라도 능히 암컷처럼 할 수 있는가. 명백함이 사방을 통달하더라도 능히 함이 없이 할 수 있는가. 만물을 낳고 기르되, 낳으면서 소유하지 않고, 하여도 자랑하지 않으며, 기르면서도 주재하지 않음을 이를 현묘한 덕이라 일컫는다.”⁷²⁾

71)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32.

72)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55.

“혼과 백을 하나로 안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기를 하나로 모아 부드러움을 이루어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마음 속을 깨끗이 닦아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위를 행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기를 여성처럼 할 수 있는가? 밝은 깨달음이 사방으로 비추나가 무지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만물을 낳고 기쁨에 있어 낳고도 갖지 않으며,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키우고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현덕이라고 한다.”⁷³⁾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것이 흠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오로지 백성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 백성들 집의 섬들을 손수 닦아주고 그 어두운 곳을 살펴 상처를 없애줄 수 있겠느냐? 知에 의존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있어 배필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을 사방에 분명하고 맑게 전하되 꾸밈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낳고 기르면서도 있어도 없는 듯하며 꾸밈에 의지하지 않고 우두머리이면서도 다스리지 않으면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하느니라.”⁷⁴⁾

“혼을 백에 신고 정기를 껴안고서 분리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까? 자연의 氣에 맡겨 지극히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할 수 있을까? 현묘한 거울을 씻어 버려 흠이 없게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식을 버릴 수 있을까? 天門이 열렸다가 닫히기도 할 때 암컷처럼 할 수 있을까? 지극히 밝게 사통팔달하되 사사로이 함이 없을 수 있을까? 그들을 생기게 하고 그들을 번식하게 하되 생기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위해주면서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며 어른이로되 주재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고 한다.”⁷⁵⁾

73) 호승희 역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동양편 04 <노자>*, 서울, 타임기획, 2005, p.36.

74) 이경숙,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156.

7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4.

11. 十一章

【原文】¹⁻¹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¹⁻²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¹⁻³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¹⁻⁴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⁷⁶

【國譯】¹⁻¹서른 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바퀴통에 모이니, (바퀴통에 연결된 서른 개의 바퀴살이 만드는) 그 빈 부분 때문에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¹⁻²진흙을 반죽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형태가 만들어내는 움푹한) 그 빈 공간 때문에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¹⁻³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안의) 빈 공간 때문에 방을 사용할 수 있다.¹⁻⁴(이처럼) 형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이로운 까닭은 (눈에 확연하게 띄지는 않지만) 형태 없는 것이 (형태 있는 것과 짝을 이루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考察】11章은 無의 작용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수레바퀴의 예를,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그릇의 예를,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방의 예를 들어 無의 효용성에 대해 記述하였다.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예이므로 한 문단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문단이 너무 길어지므로 편의상 세 문단으로 나누었다. 네 번째 문단(1-4)은 앞 문단들을 총괄하여 無의 효용성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서른 개의 바퀴살이 모두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들지만, 바퀴통의 빈 구멍(無)에서 수레의 쓰임이 있게 된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지만 그 그릇의 빈 곳(無)에서 그릇의 쓰임이 있게 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들지만 그 그릇의 빈 곳(無)에서 방의 쓰임이 있게 된다.”⁷⁷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적 翻譯을 따르되, 첫 번째 문단에서의 無는 ‘바퀴머리의 빔’⁷⁸이 아니라 ‘바퀴통에 모여든 서른 개의 바퀴살 사이의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포함해 각 문단에서의 無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데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네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

인 國譯은 “有가 이롭게 되는 것은 無가 작용하기 때 문이다.”⁷⁹ 혹은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의 바탕이 되고 없음은 쓸모의 바탕이 된다.”⁸⁰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일반적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2. 十二章

【原文】¹⁻¹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聾，五味令人 口爽，馳騁畋獵，令人心發狂，難得之貨，令人行妨。¹⁻²是以聖人爲腹不爲目，故去彼取此。⁸¹

【國譯】¹⁻¹(화려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둔감하게 하고, (현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둔감하게 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사람의 입맛을 둔감하게 하고,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처럼 자극적인 유흥)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귀한 것들은 사람의 행동을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한다.¹⁻²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성인(은 배(부름으로 상징되는 소박하고 편안한 현실 세계)를 위한 일을 할 뿐 (화려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상징되는 욕망)을 쫓지 않으니 (그릇된) 저것을 버리고 (옳은) 이것을 취한다.

【考察】12章은 聖인은 사람을 망치는 자극적인 것들을 쫓지 않음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사람을 망치는 자극적인 삶의 예를,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聖인은 자극적인 삶을 쫓지 않음을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 인 國譯은 “찬란한 빛깔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현란한 소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멀게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입맛이 없어지게 하고,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발광하게 하고, 얻기 어려운 금은 이나 주옥같은 재화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실에 해를 끼치게 한다.”⁸²인데, ‘五色’·‘五音’·‘五味’를 각각 ‘다

7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9.

77) 임수무. 老子 도덕경.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광역시. 2003. p.35.

78) 김용옥.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33.

79)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69.

80)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p.147.

8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71.

8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71.

섯 색'·다섯 음'·다섯 맛'⁸³⁾이라고 글자 그대로 翻譯한 경우보다 문맥상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前者의 翻譯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前者의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이 때문에 聖人は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느니라.”인데, 이 翻譯에 별다른 異見은 없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배라는 것은 지식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 비록 밖에 욕심낼 만한 대상이 있을 지라도 볼 수가 없다. 눈이라는 것은 외물을 볼 수 있으니 외부에 있는 대상의 유혹을 받아서 性命의 자연스러운 流路를 상하게 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노자는 배라는 말로써 일종의 간소단순정정하며 무지 무욕한 생활을 대신 표현하였으며, 눈이라는 말로써 일종의 위선적이며 욕심 많은 것을 대신 표현하였다.”⁸⁴⁾ 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이에 유의하고, 또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3. 十三章

【原文】¹⁻¹寵辱若驚，貴大患若身。¹⁻²何謂寵辱若驚。寵爲下，得之若驚，失之若驚，是謂寵辱若驚。¹⁻³何謂貴大患若身。吾所以有大患者，爲吾有身，及吾無身，吾有何患。¹⁻⁴故貴以身爲天下者，可寄天下，愛以身爲天下者，可以託天下。⁸⁵⁾

【國譯】¹⁻¹(사람들은) 총애를 얻은 경우나 (총애를 잃고) 수치를 받은 경우나 (똑같이) 놀라고, (총애, 수치, 명예, 이익 등과 같은) 큰 근심(거리들)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귀히 여긴다.¹⁻²“총애를 얻은 경우나 (총애를 잃고) 수치를 받은 경우나 (똑같이) 놀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총애를 얻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총애가 끝나면 결국) 아래로 내려오게 되므로 그것을 얻으면 (기뻐서) 놀라고, 잃으면 (싫어서) 놀란다. 그래서 “총애를 얻은 경우나 (총애를 잃

고) 수치를 받은 경우나 (똑같이) 놀란다”고 하는 것이다.¹⁻³“큰 근심(거리들)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귀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내게 큰 근심(거리들)이 있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내게 몸이 없다면 (총애, 수치, 명예, 이익 등과 같은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내게 (그런) 근심(거리들)이 어찌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진짜 근본인 몸의 소중함은 잊고 오히려 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 근심거리들을 위해 온 몸을 바치니 “큰 근심들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다.)¹⁻⁴그러므로 (그런 근심거리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을 귀히 여기는 듯 천하를 위하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고, (또 그런 근심거리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위하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다.

【考察】13章은 헛된 근심거리들이 아니라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음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헛된 것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의 두 가지 예를, 두 번째 문단(1-2)과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첫 문단에서 말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한 풀이를, 네 번째 문단(1-4)에서는 천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 記述하였다. 그런데 이 章에 대한 國譯은 전체 문단의 문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國譯本마다 차이가 크므로, 本章은 각 문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한 번에 비교하고자 한다. 이 章의 國譯例로는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 큰 근심을 소중히 다루기를 마치 제 몸 소중히 여기듯이 하라. 어찌해서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 하는가. 남의 아래된 사람은 은총을 얻어도 두려워하고 굴욕을 당해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은총이나 굴욕을 모두 두려운 것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해서 큰 근심 다루기를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가.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게 되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천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겨도 좋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83) 김용옥,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35.

84)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73.

8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75.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하를 부탁해도 좋을 것이다.”⁸⁶⁾, “사랑을 받으나 욕되나 늘 놀란 것 같이 하라. 큰 걱정을 귀히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을 받으나 욕되나 늘 놀란 것 같이 하란 말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사랑은 항상 욕이 되기 마련이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할 것이요,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사랑을 받으나 욕되나 늘 놀란 것 같이 하라 한 것이다. 큰 걱정을 귀히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말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나에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는데 이르르면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정녕코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천하를 아끼는 자에게 정녕코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⁸⁷⁾, “총애를 받아도 굴욕을 받아도 다 같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왜 총애도 굴욕도 모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가? 남을 섬기는 사람은 총애를 받아도 조심하고 총애를 잃어도 조심해야 한다. 왜 큰 근심을 다루는데 자기 몸 돌보듯이 해야 하는가? 내게 크나큰 근심거리가 있음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게 몸이 없다면 근심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아끼듯이 천하를 아낀다면 그런 사람에게 천하를 부탁해도 괜찮을 것이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천하를 맡겨도 괜찮을 것이다.”⁸⁸⁾, “총애나 치욕에 놀란 듯하여 大患을 자기 몸처럼 귀히 여긴다고 한다. 무엇을 일러 총애나 치욕에 놀란다고 하는가? 총애는 본래 비천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기뻐서 놀라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나니, 이를 일러 총애나 치욕에 놀란다고 한다. 무엇을 일러 大患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가? 나에게 大患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욕신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욕신이 없게 되면 나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오직 천하를 가볍게 보고 자기 자

신 위하기를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자기 자신 사랑하기를 천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길 수 있다.”⁸⁹⁾ 등을 들 수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일 듯 하면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각 國譯本들마다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전체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 어떤 翻譯이 옳은지 선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章은 무엇보다도 전체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문단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 첫 구절의 寵과 辱은 사람들이 주로 겪는 大患의 예들이고, 두 번째 구절의 大患은 寵과 辱을 포함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헛된 걱정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 중 첫 번째 구절에 대한 해설로써 ‘寵爲下’를 ‘총애를 얻었다가 잃고 내려온다’라고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다. 세 번째 문단의 첫 구절은 “‘총애나 욕됨 같은 큰 근심거리들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귀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이고, 두 번째 구절은 “내게 큰 근심거리들이 있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게 몸이 없다면 근심거리들이 어찌 있겠는가?”인데, 문맥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애나 욕됨 같은 헛된 근심거리들을 몸보다 더 귀히 여기므로 ‘총애나 욕됨 같은 큰 근심거리들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문장 형식상으로도 두 번째 문단이 ‘何謂寵辱若驚’으로 시작해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마무리로 ‘是謂寵辱若驚’ 구절이 덧붙여진 것처럼 세 번째 문단도 ‘何謂貴大患若身’으로 시작해 이에 대한 설명인 ‘吾所以有大患者，爲吾有身，及吾無身，吾有何患’이 있었다면 마무리로 ‘是謂貴大患若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是謂貴大患若身’ 구절이 있는 판본이 발견된 바 없으므로 이 구절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解釋 및 翻譯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吾有何患’에서 바로 네 번째 문단으로 연결하면 기존 國譯本들처럼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모호한 翻譯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의미상

86)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53.

87)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37.

88) 호승희 역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동양편 04 <노자>. 서울. 타임기획. 2005. pp.42-43.

89)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p.75-76.

‘是謂貴大患若身’ 구절이 있음을 고려하고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몸을 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헛된 근심거리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몸을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자연스레 문맥이 연결되어 ‘왜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진다. ‘헛된 욕망’이 아니라 ‘근본’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4. 十四章

【原文】¹⁻¹視之不見，名曰夷，聽之不聞，名曰希，搏之不得，名曰微。此三者不可致詰，故混而爲一。¹⁻²其上不斲，其下不昧，繩繩不可名，復歸於無物，是謂無狀之狀，無物之象，是謂恍惚，仰之不見其首，隨之不見其後。¹⁻³執古之道，以御今之有，能知古始，是謂道紀。⁹⁰

【國譯】¹⁻¹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夷)라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希)라하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미(微)라하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별하여) 따질 수 없으므로 합해서 하나로 삼는다.¹⁻²(하나인 그것은) 위라고 해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아래라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면서 (이처럼 균질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있어 (딱히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체가 없는 걸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있긴 있지만 특별히 실체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모습 없는 모습, 실체 없는 형상이라고 하고, (혹은 미묘하여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홀황(惚恍)이라고 하니 (실체를 가늠할 수 없어 앞에서) 맞이하려 해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뒤가 보이지 않는다.¹⁻³(지금까지 알려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를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다스리니, (이처럼 도의) 옛 시작을 아는 것을 일러 도기(道紀 : 도의 큰 틀)라고 한다.

【考察】14章은 道の 큰 틀인 道紀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道の 특징인 夷, 希, 微에 대해,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恍惚에 대해,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道紀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夷)라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希)라하고 하며,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이(微)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말로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함께 섞이어 하나가 된다.”⁹¹이고,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그 위는 밝지 아니하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아니하니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이름 붙일 수 없고 무물(無物 = 아무 것도 없는)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모습(狀)이 없는 모습이며 무물(無物)의 모습이라고 하며 이것을 일컬어 홀황(惚恍)이라 한다.”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다만 두 번째 문단의 國譯에는 특히 “그 위라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래라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⁹²라고 한 國譯을 많이 참고로 하였다. 세 번째 문단의 일반적 國譯은 “맞이하러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 옛 것을 잡아 지금의 것을 다스린다. 옛 처음 시작을 아는 것을 일컬어 도기(道紀 = 도의 규율)라고 한다.”⁹³ 혹은 “도의 비뚤함을 잡으면 이로써 오늘의 현상을 다스릴 수 있다. 능히 천지의 비뚤함을 알면 이를 일컬어 道の 근본이라고 한다.”⁹⁴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5. 十五章

【原文】¹⁻¹古之善爲士者，微妙玄通，深不可識。¹⁻²

夫唯不可識，故強爲之容。豫焉若冬涉川，猶兮若畏四隣，儼兮其若客，渙兮若冰之將釋，敦兮其若樸，曠兮其

91) 임수무. 老子 도덕경.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광역시. 2003. p.41.

92)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71.

93) 임수무. 老子 도덕경.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광역시. 2003. p.41.

94)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p.169.

9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79.

若谷, 混兮其若濁. ¹⁻³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久動之徐生. ¹⁻⁴保此道者, 不欲盈, 夫唯不盈, 故能蔽不新成.⁹⁵⁾

【國譯】¹⁻¹(도를 잘 닦고 실천한) 옛날의 훌륭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묘함과 (만사에 대한) 통달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다. ¹⁻²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다음과 같이) 억지로 그 모습을 형용할 뿐이니, (그가 신중하게) 조심스러워함은 마치 겨울에 개울을 건너는 것 같고, (신중하게) 머뭇거림은 마치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조심하며) 삼가는 모습은 마치 손님인 듯 하고, (경직됨이) 풀리는 모습은 마치 얼음이 풀리는 것과 같고, (흔들림 없이) 둔후한 모습은 마치 (아무 손길이 닿지 않은 투박한) 통나무와 같고, (세상을 수용하는) 넓음은 마치 계곡과 같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탁해 보이기까지 한다. ¹⁻³(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세상의) 어느 누가 (이 사람처럼 온갖 것이 뒤섞여) 탁한 사람을 고요하게 두어 서서히 맑히려 하겠는가? (세상의) 어느 누가 (이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움직여 서서히 활동하게 만들려 하겠는가? ¹⁻⁴이 도를 보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갈 수 있는 것이다.

【考察】15장은 옛적의 도를 잘 닦은 사람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도를 잘 실천한 사람은 특별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억지로 표현한 道人の 모습에 대해,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아무도 道人の 삶을 바꾸려 하지 않음을, 네 번째 문단(1-4)에서는 道人是 새로워지지 않음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옛적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은미하고 현묘하며 통달하여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대저 알 수 없는지라.”⁹⁶⁾이고, 두 번째 문단

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그러므로 억지로 형용하니, 조심함이어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는 듯하며, 머뭇거림이어 마치 사망 이윅을 두려워하는 듯하며, 의젓함이어 마치 손님인 듯하며, 풀어짐이어 마치 얼음이 녹는 듯하며, 도타움이어 마치 그 순박한 듯하며, 넓음이어 마치 골짜기와 같으며, 혼합함이어 마치 탁함과 같다.”⁹⁷⁾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의 國譯은 主體를 무엇으로 보느냐와 문맥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異見이 많은데, 몇 가지 예로 “누가 능히 자기를 흐리게 만들어 더러움을 가라앉히고 물을 맑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자기를 안정시켜 오래가게 하며 천천히 움직여서 온갖 것을 생하게 할 수 있겠는가?”⁹⁸⁾, “누가 능히 탁함을 그치게 해서 고요하게 서서히 맑게 하며, 누가 능히 편안하게 오래하게 해서 움직여 서서히 (맑은 도가) 나오게 할 수 있는가.”⁹⁹⁾, “혼탁한 물을 정지하여 고요하게 하고 서서히 맑아지게 하며, 편안하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살려지게 할 것이다.”¹⁰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앞 문단과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더럽히고자 해도 더럽힐 수가 없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다. 즉 옛날의 도를 잘 닦은 사람들은 죽은 통나무처럼 안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건드려보고 흔들어볼 생각이 나지 않게 했다는 말이다.”¹⁰¹⁾ 라는 주장과 함께 “누가 흐린 것을 오랫동안 고요하게 두어 맑게 하겠으며, 누가 안정된 것을 오랫동안 흔들어 살아나게 하려 들겠는가?”¹⁰²⁾라고 國譯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앞 문단에서 표현한 道人の 모습은 일반인 눈에는 탁해 보이고 꿈쩍도

97)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70.

98) 김용욱. 길과 얼음. 서울. 통나무. 1995. p.42.

99)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70.

10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4.

101)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p.204-205.

102)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09.

9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3.

9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3.

안할 것처럼 안정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단의 의미인데, 이렇게 보아야 앞 문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네 번째 문단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문장의 主體와 客體를 명확히 드러냄에 유의하고, 또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 번째 문단에 대한 翻譯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네 번째 문단에 대한 翻譯 역시 “이 길을 보존하는 자는 채우려하지 않는다. 대저 오로지 채우려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능히 자기를 남게 하면서 새로이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¹⁰³⁾ “이 도를 보존하는 자는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 무릇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남더라도 새로움을 이루지 않는다.”¹⁰⁴⁾ “이러한 도를 보존하여 가진 사람은 가득 채우려고 아니하니 대저 오직 가득 채우려고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차라리 남아 못 쓰게 될지라도 조급하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¹⁰⁵⁾ 등으로 譯者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세 번째 문단의 翻譯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 문단의 翻譯 역시 명료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 문단은 “탁해 보이기도 하고 변할 것 같지도 않아서 아무도 道人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세 번째 문단에 이어서 “道人은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스스로도 뭔가 새로운 걸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남아간다.”라고 결론지은 것인데, 이러한 의미가 기존 國譯本에는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6. 十六章

【原文】¹⁻¹致虛極，守靜篤，萬物並作，吾以觀復。
¹⁻²夫物芸芸，各復歸其根，歸根曰靜，是謂復命，復命曰常，知常曰明，不知常，妄作凶，知常容，容乃公。¹⁻³
公乃王，王乃天，天乃道，道乃久，沒身不殆。¹⁰⁶⁾

103) 김용옥.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43.

104)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70.

10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4.

【國譯】¹⁻¹(특정한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비어있음을 지극히 하고, (그 무엇에도 영향 받아 흔들리지 않게끔 마음의) 안정됨을 돈독하게 지킴으로써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나는 만물이 (어울려) 함께 작용했다가 (그것들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감을 본다.¹⁻²만물이 (온갖 형태로 뒤섞여 복잡하게) 번성하여(도 결국은) 각각의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정된다는 의미로) 정(靜)이라고 하고, (또) 이르러 (명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복명이라고(도) 한다. (또) 복명을 (다시) 상(常)이라고(고도)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는데, 상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한 일을 하게 되고, 상을 알면 (넓게) 포용하게 된다.¹⁻³포용하면 곧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곧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왕(과 같은 사람)이 되면 곧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면 곧 도(와 일치한 자)가 되고, 도(와 일치한 자)가 되면 오래도록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 몸이 사라질 때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考察】16章은 常을 알면 위태롭지 않음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감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靜, 命, 常, 明에 대해, 세 번째 문단(1-3)에서는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음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國譯은 ‘致虛極, 守靜篤’의 主體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천지가 그 사이를 공허하게 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고, 靜寂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돈독하면 만물은 일체히 일어나 생동하니 나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¹⁰⁷⁾는 主體를 自然으로 본 國譯이고, “虛를 극에 이르게 하고 靜을 독실히 지켜서 만물이 다 같이 성장, 발전할 때에 나는 그로써 되돌아감을 본다.”¹⁰⁸⁾는 主體를 세 번째 구절의 ‘萬物’로 본 國譯이고, “빔을 극에 이르게 하고 맑고 고요함을 도답게 하여 나는 만물이 더불어 생겼다가 돌아감을 보느니라.”¹⁰⁹⁾는 主體를

10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7.

107)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63.

108)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7.

109)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老子로 본 것이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과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문단 전체의 主體를 네 번째 구절의 ‘吾’, 즉老子로 파악한 翻譯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온갖 사물과 사건이 많고 어지럽게 변화할지라도 결국 각각 그들의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하다고 하니, 고요함 이것이 본원으로 돌아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몇몇하다고 한다. 몇몇한 것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니, 몇몇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근거 없이 행동하면 흥해진다. 몇몇한 것을 알면 만물을 포함하면서 그에 통한다.”¹¹⁰인데, ‘靜·復命·常·明’은 풀어쓰는 것보다 명사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에 편리하리란 생각 외엔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公乃王’을 ‘쏟려온다’¹¹¹ 혹은 ‘천하가 귀순한다’¹¹²라고 翻譯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만물을 어느 것이나 다 포용하는 것은 곧 공평한 것이다. 공평하면 그것이 곧 왕도이며, 왕도는 곧 하늘의 법칙이다. 하늘의 법칙은 바로 道이니, 이 도를 따르면 몸이 다하도록 위대함이 없을 것이다.”¹¹³인데, 행위의 主體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문단과 이어지는 바로 앞 구절인 “상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한 일을 하게 되고, 상을 알면(넓게) 포용하게 된다.”에서는 常을 알고 모르는 ‘사람’이 主體가 되고, 또 본 문단의 끝 구절인 ‘沒身不殆’에서도 ‘사람’이 主體가 되므로 본 문단을 翻譯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7. 十七章

2006. p.220.

11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7.

11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87.

112) 김용욱.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44.

113)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64.

【原文】¹⁻¹太上，下知有之，其次親而譽之，其次畏之，其次侮之，信不足焉，有不信焉。¹⁻²悠兮，其貴言。功成事遂，百姓皆謂我自然。¹¹⁴

【國譯】¹⁻¹가장 좋은 윗사람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윗사람이 있다는 것(정도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단계의 윗사람)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친근해하며 칭찬하게 하고, 그 다음(단계의 윗사람)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단계의 윗사람)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경멸하게 하는데, (이 상태에 이르면 윗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불신(만)이 있는 상태다. ¹⁻²염려스럽구나, (자기가 그리되게 했다고 윗사람이 스스로) 귀히 여기는 말이여! (그런 말 하지 말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되면 백성들이 ‘내가 스스로 했다’고 말하게 하라.

【考察】17장은 윗사람은 그 존재감이 없을수록 좋은 것임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백성들이 인식하는 단계별 훌륭한 윗사람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가장 좋은 윗사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것임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가장 좋은 군주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는 줄만 알고, 그 다음은 그를 친애하면서 칭찬하며,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그를 경멸한다.”¹¹⁵인데, 여기까지는 별다른 異見이 없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信不足焉，有不信焉’의 경우는 다음 구절과 독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에 그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된다.”¹¹⁶라고 翻譯한 경우와 그 다음 구절인 ‘悠兮，其貴言’과 이어서 “믿음이 부족하면 반드시 불신이 있게 되니, 말이 귀하여 그럴듯할수록 더욱 염려스럽도다.”¹¹⁷라고 翻譯한 경우로 크게 나뉜다. 後者의 경우는 ‘悠兮，其貴言’를 “말이 귀하여 그럴듯할수록 더욱 염려스럽도다.”¹¹⁸라고 翻譯한

114)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0.

115)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0.

11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0.

117)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25.

118)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경우인데, 이와 비슷하게 “근심되도다! 그 귀한 말들이여.”¹¹⁹⁾라고 翻譯한 경우도 있지만 끝 문장과 이어서 “한가롭고 편안함이여! 그가 말을 아끼어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면 백성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¹²⁰⁾라고 翻譯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단 끊기를 어떻게 했느냐와 ‘悠兮, 其貴言’을 어떻게 解釋했느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꼭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信不足焉, 有不信焉’은 독립되거나 뒷 구절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 구절과 이어지는 것으로, 다스리는 자의 여러 단계 중 마지막인 ‘侮之’의 단계에 이르면 ‘믿음이 없어 오직 불신만이 있는 상태다’라고 연결해 解釋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悠兮, 其貴言’에서 ‘悠兮’는 ‘한가롭고 편안하다’ 보다는 ‘엄려스럽다’라고 解釋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其貴言’은 ‘그럴 듯한 말’ 혹은 ‘말을 귀히 여겨 아낀다’ 보다는 ‘다스리는 자가 잘했다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생색내는 말’의 의미로 解釋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음 구절과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다스리는 자가 잘했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말을 할까 염려스럽다. 그러지 말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사되면 백성들이 ‘스스로 그리했다’라고 말하게 하라.”라는 식으로 문단 전체의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8. 十八章

【原文】¹⁻¹大道廢, 有仁義. 慧智出, 有大偽.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¹²¹⁾

【國譯】¹⁻¹(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원리인) 대도가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지니 인의가 (서로 존중하며 살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된 규범으로) 생겨났다. (특정한 행동 방식이나 이념을

강조하는) 지혜가 나오자 (그것에 반하는 행동 방식과 이념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생겨났다. (세상의)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강조되는) 규범으로) 효도와 자애가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하니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신(의 덕목)이 생겨났다.

【考察】18章은 大道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엄밀하게 보면 의미상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전체 구절이 그다지 길지 않으므로 한 개의 문단으로 보았다. 이 章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大道가 버려짐에 仁義가 있게 되고, 지혜가 출현함에 큰 거짓이 있게 되며, 육친이 불화함에 효도와 자애가 있게 되고, 국가가 혼란한 뒤에 지조 굳은 신하가 있게 되니라.”¹²²⁾인데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國譯을 따르되 國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19. 十九章

【原文】¹⁻¹絕聖棄智, 民利百倍. 絕仁棄義, 民復孝慈. 絕巧棄利, 盜賊無有. 此三者, 以爲文不足.¹⁻²故令有所屬, 見素抱樸, 少私寡欲.¹²³⁾

【國譯】¹⁻¹(통치자가 만약 특정한 행동 방식이나 이념을 강요하는 소위) 성스러운 지혜를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끊어 버린다면 (자유로운 삶의 누림을 통해 얻게 되는) 백성들의 이로움이 (오히려) 백배 늘어날 것이다. (통치자가 만약 특정 목적이나 명분 달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인의를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끊어 버린다면 (오히려) 백성들의 효성심과 자애심이 (본성에서 자연히 우리나라와) 회복될 것이다. (통치자가) 교모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끊어 버린다면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말로 하기에는 부족하다.¹⁻²그러므로 (이것들 대신 백성들로 하여금) 속하게 해야 하는 (가치인) 것은 (바로) 소박함을 갖고, 사욕을 적게 하는 것이다.

2006. p.225.

119)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78.

120)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0.

12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3.

12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3.

12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5.

【考察】19章은 버려야 할 가치와 새로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성스럽음과 지혜로움, 仁과 義, 기교와 이익을 버려야 함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소박함을 추구하고 私欲을 줄여야 하며 함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聖人を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가 되고, 어둠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하고, 기교를 끊고 이욕을 버리면 도적이 있지 않을 것이니, 이 세 가지는 꾸밈으로 충분하지 않다.”¹²⁴인데, 여기서 ‘此三者, 以爲文不足’ 구절에 대한 翻譯은 ‘이 셋은 문명의 장식일 뿐이며 족한 것이 아니다’¹²⁵, ‘이 세 가지는 말로 해서 부족한 것이니라’¹²⁶, ‘이 세 가지는 본보기로 삼기에 부족한지라 (이 세 가지는 말로써는 판별하기에 부족한지라)’¹²⁷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맥을 볼 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의미인 ‘이 세 가지는 말로 해서 부족한 것이니라’라는 翻譯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적 翻譯을 따르되 특히 이 점을 고려하고, 또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구절인 ‘故令有所屬’의 翻譯이 ‘그러므로 돌아감이 있게 하라!’¹²⁸, ‘그러함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기 몸 둘 곳이 있게 하라’¹²⁹, ‘그러므로 귀속하는 바가 있다’¹³⁰, ‘그러므로 속한 바가 있게끔 하라’¹³¹ 등으로 나뉘는데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꼭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見素抱樸, 少私寡欲’이 새로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故令有所屬’은 “앞에서

버려야 할 가치를 말했으니 이제 새로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말하겠다. 다음과 같은 가치들을 우리 삶 속에 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단의 나머지 구절인 ‘見素抱樸, 少私寡欲’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아직 색칠하지 아니한 素를 드러내고 아직 대패질하지 아니한 樸을 껴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게 할 것이다.”인데, ‘素’와 ‘樸’은 굳이 뜻을 풀이하지 않고 ‘소박’이라는 단어로 써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는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 翻譯을 따르되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20. 二十章

【原文】¹⁻¹絕學無憂, 唯之與阿, 相去幾何, 善之與惡, 相去若何. ¹⁻²人之所畏, 不可不畏. ¹⁻³荒兮, 其未央哉,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 我獨泊兮, 其未兆, 如嬰兒之未孩. ¹⁻⁴儻兮, 若無所歸.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我愚人之心也哉. ¹⁻⁵沌沌兮, 俗人昭昭, 我獨昏昏, 俗人察察, 我獨悶悶. ¹⁻⁶澹兮, 其若海, 矇兮, 若無所止. ¹⁻⁷衆人皆有以, 而我獨頑似鄙. 我獨異於人, 而貴食母.¹³²

【國譯】¹⁻¹(특정한 것은 옳고 특정한 것은 그르다고 구분 짓는) 학문을 끊으면 (남들과 같등하는 데서 생기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니, ‘예’라는 대답과 ‘아니오’라는 대답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좋고 나쁨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는가? ¹⁻²(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며 구별하)는 (공정과 부정, 좋고 나쁨 등의 차별)점을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 역시 신경 쓰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구나. (쓸데없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들의 가치를 따르다 보니 마음이 참으로) ¹⁻³황량하고 황량하구나! (그 황량함이) 끝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며 맛난 음식을 즐기는 것 같고, (또) 봄날 누대에 오르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124)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83.

125)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49.

126)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43.

127)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5.

128)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49.

129)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43.

130)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83.

131)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5.

132)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9.

(갈 곳을 못 찾고) 머물러 있고, (또 즐거움 같은 감정이 생김) 아무런 징조(조차)도 없으니 마치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기 같다.¹⁻⁴ 고달프고 고달프구나! 돌아갈 곳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으나 나만 홀로 (아무 것도 남은 것 없이 다) 잃어버렸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된 것 같은 심정)이다.¹⁻⁵ 혼돈스럽고 혼돈스럽구나! 사람들은 (모두 세상 물정에)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둡고, 사람들은 모두 (세상 물정을) 잘 헤아리는데 나만 홀로 (답답하게 잘 파악하지 못해) 티미하다.¹⁻⁶ (마음이) 일렁이는 것이 바다(의 파도)와 같고, 흔들리는 것이 (바람과 같아) 멈추지 않는구나!¹⁻⁷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만 홀로 완고하고 비루하니,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나는 세상의 바탕이 되는 도, 즉 다른 말로) 식모를 귀히 여기는 것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考察】 20장은 道를 앞에도 불구하고 회회낙락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사는 老子 자신에 대한 한탄을 記述한 章으로 첫 번째 문단(1-1)에서는 배움을 끊어야 함을, 두 번째 문단(1-2)에서는 다수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세 번째 문단(1-3)에서부터 여섯 번째 문단(1-6)까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고뇌하는 老子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일곱 번째 문단(1-7)에서는 老子 자신이 일반인과 달리 힘든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記述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배우기를 끊으면 근심이 없으니, ‘예!’라고 공손히 대답하는 것과 ‘예끼!’하고 꾸짖는 것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¹³³인데, ‘唯’와 ‘阿’를 어떻게 解釋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구절인 ‘唯之與阿’가 ‘네와 아니요’¹³⁴, ‘예라는 대답과 응이라는 대답’¹³⁵ 등으로 달리 翻譯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네 번째 구절에서 ‘善’과 그에 상대되는 ‘惡’이 비교된 것으로 볼 때 이 구절의 ‘唯’와 ‘阿’

도 ‘善’과 ‘惡’ 만큼이나 서로 상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맞으므로 “‘唯之與阿’는 ‘따르는 것과 어긋나는 것’과 같은 말이다.”¹³⁶라는 解釋, 즉 ‘긍정적 대답’과 ‘부정적 대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두 번째 문단의 앞 두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¹³⁷로 대체로 일치하는데, 나머지 두 구절인 ‘荒兮, 其未央哉’에 대해서는 ‘황량하도다! 텅 빈 곳에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네’¹³⁸, ‘공허함이어! 그 다함이 없구나.’¹³⁹, ‘우러러 쳐다봄이어! 미처 다함이 없도다’ 등으로 달리 翻譯된다. 그런데 앞 두 구절과 뒤 두 구절이 의미상 서로 이어진다고 본다면 ‘荒兮, 其未央哉’은 ‘人之所畏, 不可不畏’의 결과론적 심정,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 보는 것이 좋으므로 위에서 든 翻譯例 중에서 ‘공허함이어! 그 다함이 없구나.’라는 翻譯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고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세 번째 문단에서 여섯 번째 문단까지의 國譯은 國譯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못사 사람들은 회회낙락하여 큰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화사한 봄날에 누각에 오르는 것 같네. 나 홀로 답답하도다! 그 아무것 드러나지 아니함이 웃음 아직 터지지 않은 갓난아기 같네. 지치고 또 지켰네!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네. 못사람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왜 나 홀로 이다지도 부족한 것 같은가? 내 마음 왜 이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혼돈스럽도다! 세간의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 홀로 흐리멍덩할 뿐일세. 세간의 사람들은 잘도 살피는데 나 홀로 답답할 뿐일세. 답답하여 바다같이 너르고, 거센 바람일때는 그

136)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14). 경기 도. 檀國大學校出版部. 2008. p723. ‘唯之與阿 猶言從之與違也’

137)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86.

138) 김용욱,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51.

139)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86.

13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99.

134) 김용욱, 길과 연음. 서울. 통나무. 1995. p.51.

135)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86.

칠줄을 모르네.”¹⁴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짐승을 먹는 듯하며 봄날 누대에 오르는 듯 하거늘, 나는 홀로 조용히 그 조짐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갓난 아이와 같으니, 고달픈이여!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거늘 나는 홀로 잃어버린 것 같으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어리석도다. 세상 사람들은 밝거늘 나는 홀로 어두우며 세상 사람들은 살피거늘 나는 홀로 번민하니, 답박함이여! 그 바다와도 같고, 공허함이여! 그침이 없는 것과 같도다.”¹⁴¹⁾, “아무리 예와 인의를 가르쳐도 사람들은 히히덕거리며 맛있는 요리를 즐기고, 쌍쌍이 누대에 올라 오늘을 즐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나는 홀로 버려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갓난아이와 같도다. 고달프고 지쳤건만 돌아갈 곳도 없으라.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건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도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 마음을 보나니 어둡고 어둡도다. 세상 사람은 모두 밝고 명랑한데 나만 홀로 어둡고 아둔하구나. 내 마음 흔들리기가 파도 일렁이는 바다와 같고, 그치지 않고 부는 높은 바람과 같구나.”¹⁴²⁾, “대중은 즐거워서 훌륭한 음식을 누리는 듯하고 봄날 전망대에 오르는 듯하나, 나 홀로 답박하게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듯하고, 마치 갓난아이가 아직 웃을 줄 모르는 듯하며, 초체하고 피곤함이여! 돌아갈 곳조차 없는 듯 하도다! 못사람들은 모두 남아도는 것이 있는 듯 하나 나만이 버림받은 듯 하나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다. 구분하여 나뉘어 없어서 이룰 수 없음이여! 俗인들이 눈부시게 할 적에 나만이 어리석은 듯하고, 속인들이 영리한 듯 할 적에 나만이 멍청한 듯 하여, 넓고 아득함이여! 바다와 같으며, 바람에 나부끼듯 함이여! 그침이 없도다.”¹⁴³⁾ 등의 國譯例를 보면 譯者에 따라 문맥 파악과 字句 解釋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譯者마다 翻譯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章과는

달리 이 章에는 老子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儻儻兮’, ‘沌沌兮’, ‘澹兮’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翻譯했기 때문에 모두 일정 정도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翻譯을 전적으로 따를 정도는 아니므로 기존 國譯本들의 성과를 토대로 조금 다른 翻譯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단을 ‘荒兮 ~ 如嬰兒之未孩’, ‘儻儻兮 ~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 我獨悶悶’, ‘澹兮 ~ 若無所止’로 각각 구분하였다. 老子의 심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한 개의 문단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그리 되면 문단이 너무 길어져 의미 파악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4개의 문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감탄사인 ‘荒兮’, ‘儻儻兮’, ‘沌沌兮’, ‘澹兮’로 잡았다. 즉 자신의 신세를 축약한 감탄사를 문단 앞에 내 뱉고, 뒤 이어 그러한 감탄사를 내 뱉게 한 현실 상황을 敘述한 방식으로 전체 문단 구조를 파악했다. 그리고 ‘荒兮’는 황량한 마음 상태를, ‘儻儻兮’는 고달픈 마음 상태를, ‘沌沌兮’는 혼돈스러운 마음 상태를, ‘澹兮’와 ‘澹兮’는 각각 일렁거리는 마음 상태와 흔들리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翻譯하였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고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일곱 번째 문단에 대한 일반적인 國譯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거늘 나는 홀로 문하여 천한 것과 같으니, 내가 홀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만물의 근원(食母)을 귀하게 여김이도다”인데, 대체로 翻譯이 통일되어 있으나 ‘食母’에 대한 翻譯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위에서 예를 든 ‘만물의 근원’과 달리 ‘먹이는 엄마’¹⁴⁴⁾, ‘천지의 어머니’¹⁴⁵⁾, ‘유모’¹⁴⁶⁾ 등으로 譯者마다 翻譯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의 ‘食母’는 만물의 근원인 道의 異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翻譯으로 ‘도를 얻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¹⁴⁷⁾라는 翻譯이 있지만, 여기서는 ‘食母’

140)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p.51-52.
 141)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p.86-87.
 142)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56.
 143)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100.

144)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53.
 145)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상. 2006. p.256.
 146)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102.
 147)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79.

중 ‘母’를 道로 보고, ‘食’은 얻는다는 뜻의 ‘得’의 의미로 보았다. 그런데 이 보다는 ‘食母’ 전체를 道로 解釋하는 것이 문맥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모두 고려하고 翻譯 단어의 선택과 문맥의 흐름에 유의하여 上記한 바대로 國譯하였다.

IV. 結 論

『道德經』에 내재된 사유방식이 韓醫學 사유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道德經』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先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國譯本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道德經』 國譯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총 50 餘種의 기존 國譯書 중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10 종의 서적을 선택 및 참고하여 1-20章까지의 國譯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既存 國譯書들의 학술적 성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일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나 부정확한 문단 구분, 그리고 章 전체의 의미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2. 각 章의 처음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의 일관성 있는 의미 연결에 특히 중점을 두고 國譯한 결과, 多意性을 가진 單語 및 文句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翻譯할 수 있었다. 또 기존 國譯書에서 애매모호하게 翻譯된 표현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6章의 내용을 養生法 중의 하나인 호흡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道를 설명한 것으로 명확하게 翻譯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립한 國譯本은 각 章 내용의 한의학적 연관성 및 한의학에 미친 영향의 분명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3.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翻譯한 결과 原文의 의미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뜻글자인 漢文 특유의 重意性이 다소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4. 10章의 경우에는 既存 國譯書들을 모두 참고하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하였으나 결국 만족스런 翻譯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章을 포함해 未盡하다고 판단되는 章들의 翻譯에 대해서는 추가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21章에서부터 81章까지의 추가 國譯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논문>

1. 김도훈, 홍원식. 『老子』와 『黃帝內經』의 인간관과 자연관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2. Vol.15(1). p.4.
2. 김시천. 『노자』의 양생론적 해석과 의리론적 해석 : 『하상공장구』와 『왕필노자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3. p.1.

<단행본>

1. 김석진, 신성수. 주역으로 보는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5. p.23, 29, 32, 35, 41, 46, 51, 55, 70, 78, 83, 86. pp.86-87.
2. 김용욱. 길과 얻음. 서울. 통나무. 1995. p.13, 15, 19, 27, 32, 33, 35, 37, 42, 43, 44, 49, 51, 53. pp.51-52.
3.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사. 2008. p.21. pp.15-16.
4.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14). 경기도. 檀國大學校出版部. 2008. p723.
5.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5).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356.
6. 成昊俊.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教思想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0. Vol.13(1). p.254.
7. 儒教大辭典編纂委員會. 儒教大辭典. 서울. 성균관. 2007. p.1055.
8. 이강수 옮김.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p.37, 42, 45, 47, 48, 51, 54, 56, 58, 61, 64,

- 69, 71, 73, 75, 79, 83, 84, 87, 90, 93, 95, 99,
100, 102. pp.38-41, 48-49, 75-76.
9. 이경숙 著. 完譯 道德經 道經. 서울. 도서출판 명
상. 2006. p.120, 126, 131, 156, 209, 220,
225, 243, 256. pp.204-205, 99-100.
10. 이민수 譯解. 老子(道德經). 서울. 惠園出版社.
1990. p.53, 63, 64, 79.
11. 호승희 譯解.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 동양편 04
<노자>. 서울. 타임기획. 2005. p.36.
pp.42-43.
12. 임수무. 老子 도덕경.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광
역시. 2003. p.35, 41.
13.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
원. 2004. p.174.
14. 오강남. 도덕경. 서울. 현암사. 2009. p.15, 39,
47, 56, 71.
15.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9. p.94, 111, 147, 169.